

카자흐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4

I. 일반개황

면적	2,717천 km ²	G D P	1,562억 달러 (2017년)
인구	1,819만 명 (2017년)	1 인 당 GDP	8,585달러 (2017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Tenge
대외정책	친러시아, 대 서방 우호관계	환 율 (달러당)	326 (2017년 평균)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제9위의 영토대국으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으며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후계구도의 불안정은 정치부문의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프라 개발과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위해 ‘누를리 졸(Nurly Zhol: 밝은 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2017~2020 국가산업 혁신발전프로그램’, ‘2015~2020 민영화 정책’ 등의 국가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며,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인프라 투자 등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o	2018 ^f
경제성장률	4.3	1.2	1.1	3.3	2.8
재정수지 / GDP	2.5	-6.3	-4.1	-6.6	-1.9
소비자물가상승률	6.7	6.7	14.6	7.3	6.5

자료: IMF

□ 국제에너지 시장의 유가 안정으로 경제성장률 상승

- 국제유가의 안정과 최대 유전에서 생산 재개에 따라 2017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201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최대 유전인 카샤간 유전에서 생산 재개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전년도의 1.1%에서 3.3%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도 유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어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IMF 자료에 따르면 브렌트유, 두바이유, 서부텍사스유의 평균 국제유가는 2016년 배럴 당 43 달러에서 2017년의 배럴 당 52.7달러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도 59.9달러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지속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2017년에는 GDP 대비 6.6%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1.9%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의 재정수지 적자는 은행권의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정부의 구제금융 지출, 연금과 임금인상 등 사회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 등에 따른 것이며, 2018년에는 정부지출 축소와 에너지 부문의 세입 증가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통계화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하락 추세**

- 2015년 변동환율제 도입이후, 미달러 대비 통계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2016년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2017년 환율이 하락세를 기록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하락 추세에 있음.
 -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14.6%를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7.3%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2018년에도 6.5%로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추세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2017년에 기준금리를 12%에서 10.25%로 세 차례 인하하였으며, 2018년 1월에도 9.75%로 인하하였음.
 - 중앙은행은 2016년 중반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하락 추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함(11%(2017.2)→10.5%(2017.6)→10.25%(2017.8)→9.75%(2018.1)).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 카자흐스탄 경제는 원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등 자원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수출, 재정수입, 외국인직접투자 등에서 국제 원자재시장의 가격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 부문이 GDP의 20~25%, 수출의 70~80%를 차지하는 에너지, 자원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이며, 제조업 생산 기반은 취약하여, 소비재 등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 부문 취약성은 경제 발전에 장애요인**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2017년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하여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음.
 - 2017년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정부는 GDP의 약 4%에 달하는 65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부실채권기금(Problem Loan Fund)에 지원하였으며, 중앙은행도 5억 달러의 은행권 회생자금을 지원하였음.
- 정부는 은행 간 합병이나 외국은행에 대한 매각 등을 통해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권의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 2017년 3월 이후, 자산 규모 260억 달러로 카자흐스탄의 최대은행인 할릭 은행(Halyk Bank)은 카즈코메르츠(Kazkommertsbank) 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말 합병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2017년 6월부터 알틴 은행(Altyn Bank)이 지분 60%를 중국 CITIC 은행에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내에 매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됨.

나. 성장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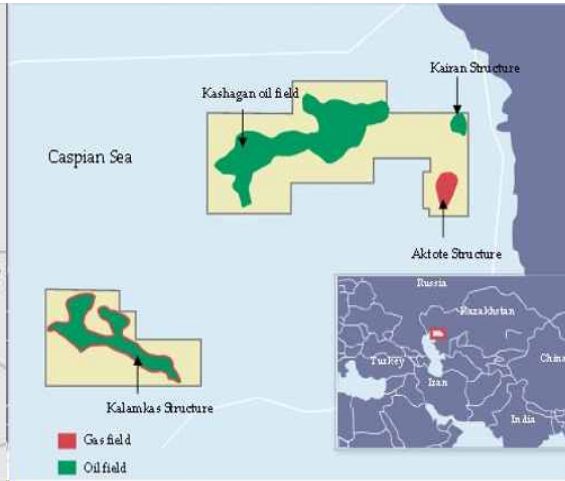
□ 에너지 자원의 개발 잠재력과 국부펀드 활용을 통한 성장가능성

- 원유, 천연가스과 광물 등 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에너지 부문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으며, 2016년 말에는 최대 유전인 카샤간에서 원유 생산이 재개되었음.
 - 2016년 기준으로 원유는 300억 배럴의 매장량에 일일 167만 배럴 생산(연 7,930만 톤), 천연가스는 1조 m³의 매장량에 연 199억 m³ 생산을 기록하였음.
 - 매장량이 90억~130억 배럴로 평가되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유전인 카샤간(Kashagan) 유전이 2013년 생산개시 한 달 만에 가스 누출로 생산이 중단된 이후, 2016년 10월 생산을 재개하였으며 점차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¹⁾

그림 1. 카샤간 유전



그림 2. 카샤간 유전, 가스전 위치



자료: 매경이코노미. 2011년 5월 23일

자료:<http://drillingandproduction.energy-business-review.com/>

○ 에너지 수출소득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국부펀드(National Fund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자금을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 기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국부펀드 규모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579억 달러이며, 국제유가하락과 정부 재정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지출 확대로 2014년 8월의 772억 달러에서 2016년 1월 642억 달러, 2018년 2월 579억 달러로 감소하고 있음.

- 국부펀드는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의 '누를리 줄' 등의 정부 개발정책에 따른 인프라 개발과 산업다변화 지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2)

□ 산업 다변화, 정부 재정 확충,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

○ 비에너지 부문의 발전과 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2015년 이후 2020년까지 국영기업들의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과거에도 점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2015년 국제유가 하락으

1) 카스피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카샤간 유전은 KazMunayGas (16.87%), Eni (16.81%), ExxonMobil (16.81%), Shell (16.81%), Total (16.81%), PetroChina (8.33%), INCS(Inpex (51%), JOGMEC (49%)의 합자회사, 7.56%)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2) 한국수출입은행, 「카자흐스탄 '누를리 줄' 경제발전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6년 11월 참조.

로 경제가 침체된 후, 정부는 재정 확보와 산업 다변화 등의 목적으로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을 계획함.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70억 달러에 이르는 900개 국영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5억 1000만 달러에 이르는 367개 국영기업의 지분이 매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65개 주요 대규모 국영기업들이 지분매각 추진 대상으로 포함됨.

- 정부는 삼룩카지나의 자회사들인 국영항공사 ‘에어아스타나’와 우라늄 부문의 국영기업인 ‘카즈아톰프롬’ 지분의 최대 25%를 매각할 계획임.
- 또한 최대석유기업인 ‘카즈무나이가스’, 전력기업인 ‘삼룩에너지’, 철도기업인 ‘테르미즐리’, 우편공사인 ‘카즈포스트’ 등의 지분 매각도 계획되어 있음.

다. 정책성과

□ 국제운송망과 에너지 인프라 연결망을 개선하고 있으며, 국가발전프로그램인 ‘누를리 졸’을 통해 지원

○ 2015년 4월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운송, 에너지, 주택 등 인프라 건설을 위주로 한 “2015~2019 국가 프로그램 ‘누를리 졸’을 통해 운송, 에너지 등의 인프라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운송 인프라에는 서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도로, 아스타나 주변 도로망 건설, 에너지 인프라에는 국내 각 지역 간의 전력망 연결 등이 주요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 2017년에는 ‘누를리 졸’ 프로그램으로 1,100만 m³의 주택 건설이 시작되고, 4,000 km의 도로가 재건되었으며, 2018년에도 528 km의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인프라 건설이 추진될 계획임.

○ 카자흐스탄은 조지아, 터키, 아제르바이잔, 중국 등과 트랜스-카스피해 국제운송회랑(TITR: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TITR 프로젝트를 통하여 카스피해에 항만을 건설하고, 중국의 연운강 항만으로부터 코카서스 지역과 흑해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운송망을 다른 참여국들과 함께 건설하고자 함.
-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의 쿠릭항(Kuryk Port)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바쿠항과 조지아를 거쳐 유럽으로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 * 2013년부터 추진된 TITR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6,500 km의 육상과 해상을 통과하는 물류 루트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의 국영철도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음. 이 루트를 통한 중국에서 유럽으로의 화물 운송시간은 15일로 기존의 해상 운송기간 60일을 크게 단축하게 됨.

그림 3. 트랜스-카스피해 국제운송회랑(TITR: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



자료: <https://azertag.az> 2017년 11월 16일

□ ‘2015~2019 국가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 발전 지원

- 국가산업혁신 발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부문의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및 산업 구조 개혁을 기대함.
- 산업혁신발전 프로그램은 2010~2014년 동안 1단계가 추진되었으며, 현재 2단계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산업 발전을 위해 약 1000여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며, 약 164억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영지주회사 운영을 통한 산업 발전 추진

- 인프라, 에너지, 제조업, 금융 등 다양한 부문의 국영기업을 자회사로 한 국영지주회사 ‘바이테렉’을 운영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바이테렉의 11개 자회사 가운데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카지나 자산관리’, ‘카자흐스탄 투자펀드’,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준비 센터’ 등 4개의 국영기업이 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준비 센터’는 인프라 및 주택 건설 등과 관련된 PPP 사업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 상 수 지	6,140	-5,134	-8,518	-8,291	-6,458
경 상 수 지 / G D P	2.8	-2.8	-6.4	-5.3	-3.8
상 품 수 지	36,245	12,672	9,193	17,494	22,918
수 출	80,309	46,516	37,263	49,252	57,456
수 입	44,064	33,844	28,069	31,758	34,538
외 환 보 유 액	21,814	20,295	20,096	18,249	20,218
총 외 채 잔 액	157,562	153,381	163,758	171,957	177,354
총 외 채 잔 액 / G D P	71.2	83.2	122.5	110.1	104.1
D S R	18.0	36.3	37.8	34.7	33.6

자료: IMF, EIU, OECD.

□ 국제에너지 시장의 유가 상승으로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감소

-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광물 등이 주요 수출품이며, 유가 안정

에 따라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감소함.

- 2017년의 수출액은 2016년에 비해 32% 증가한 493억 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액은 13% 증가하여 상품수지는 약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수출액이 더욱 증가하여 22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의 -6.4%에서 2017년에는 -5.3%로 감소하며, 2018년에는 -3.8%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다국적 에너지기업의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 수지 적자 및 이 기업들의 이익배당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7년의 서비스 수지 적자는 44억 달러, 소득수지 적자는 16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도 서비스, 소득 수지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에너지 시장의 유가 상승으로 환율 안정

- 2016년 이후, 국제유가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환율은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평균 환율은 2016년의 달러당 342 텡게에서 하락한 326 텡게를 기록하였음.
- 2018년에도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평균 환율은 달러당 329 텡게로 전망됨.

□ GDP와 수출액 증가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 비율 및 D.S.R. 감소 추세

- GDP 규모의 증가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6년의 122.5%에서 2017년 110.1%로 하락하였으며, 2018년에도 104.1%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D.S.R.은 수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2016년의 37.8%에서 2017년 34.7%로 하락하였으며, 2018년에도 33.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안정적인 정치지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 보유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음.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대선에서 97.7%의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여 2020년까지 집권하게 됨.

○ 정부에 대한 반대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2016년 3월의 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누르-오타(Nur-Otan)당이 82.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녀가 상원의 요직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

○ 향후 후계 구도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장녀 다리가 나자르바예바(Dariga Nazarbayeva)는 2016년 10월 상원의 요직인 국제관계 및 국방, 안보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다리가 나자르바예프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는 부총리직을 수행하였으며, 나자르바예프 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받을 가능성이 있음.

□ 헌법 개정을 통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정치 제도 개혁 추진

○ 2017년 3월 의회의 권한 강화, 사법 제도 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서 승인함.

-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외교부, 국방부, 행정부 장관을 제외한 장관의 추천과 해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행정부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총리가 정부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대통령뿐 아니라 의

회에도 보고할 수 있게 함.

- 행정부의 자립성을 강화하여, 국가프로그램이나 공무원의 임금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이나 선거 절차를 기존의 대통령령이 아닌 헌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위상을 강화함.
- 또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부령이나 총리령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였음.

2. 사회안정

□ 임금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시위 발생

- 2017년 11월 말 열악한 근무조건과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시위가 카라간다 남부 제즈카즈간 지역의 구리 광산에서 발생하였음.
 - 카자흐스탄 최대의 구리채굴 및 제련 기업인 카작무스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남부 지역의 구리 광산에서 임금인상과 연금 지급 조건 개선, 노동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약 300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생하였으며, 회사측과의 임금인상 합의로 파업이 중단되었음.
- 2017년 12월 초 열악한 근무조건과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시위가 카라간다 북동부 지역의 8개의 광산에서 발생하였음.
 - 시위가 발생한 광산들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시위에는 약 680여명의 광부들이 참여하였음.
 - 시위는 2015년 말의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률 상승에 따른 노사간의 임금인상 합의를 회사측에서 취소한 것과 위험한 근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며, 아르셀로미탈 측의 임금 30% 인상제안에 따라 파업이 중단되었음.

3. 국제관계

□ 중국은 두 번째 교역국이며, 에너지, 운송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강화

- 2017년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의 중국과의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13.5%로 러시아(20.6%) 다음의 두 번째 교역규모를 기록함.
 - 중국은 카자흐스탄 전체 수출의 12.0%(이탈리아가 17.9%로 첫 번째, 러시아 9.3%로 세 번째 수출국)를 차지하는 두 번째 수출대상국이며, 전체 수입의 16.0%를 차지하는 러시아(39.2%) 다음의 두 번째 수입국임.
-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과 협력하여 운송, 에너지 인프라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중국과의 대표적인 인프라 협력 프로젝트로는 서유럽-서중국 운송 인프라 건설, 호르고스 물류 특구 건설 등이 있음.

□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참여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주도로 2015년 1월에 출범한 구소련 지역의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함께 EAEU 설립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2018년 1월에는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를 설립하여 카자흐스탄의 EAEU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 AIFC 회장은 카이랏 켈림베토프 전중앙은행장으로 이사회에는 카자흐스탄의 총리, 경제부 장관, 재무부 장관과 EBRD 총재와 러시아 스베르뱅크 은행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산관리, 자본시장, 이슬람 금융, 새로운 금융 기법 등의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 2017년 카자흐스탄의 EAEU와의 교역규모는 전체 교역의 22.4%를 차지하였으며, 점차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 투자관계가 확대되고 있음.³⁾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역내 관세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에너지, 금융시장 등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3) 한국수출입은행,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 2017년 12월 참조.

- EAEU는 역내 관세 폐지, 역외 동일관세를 적용,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8년 1월에는 전자통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AEU 신관세법이 발효되었음.
- 현재 EAEU 회원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이며, 2017년 4월에는 몰도바가 옵저버 국가로 가입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중장기 외채가 대부분으로 OECD 회원국 ECA에 대해 일부 연체하고 있으며, 외채지표는 다소 개선
 - 2017년 9월 말 기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승인금액은 단기 1억 2,830만 달러, 중장기 22억 달러 등이며, 이 가운데 중장기 1억 1,900만 달러가 연체 중이고, 그 중에서 9,370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
 - 2017년에는 외채지표가 2016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외채상환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이 2016년의 357.1%에서 304.8%로 하락하였으며,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2016년의 122.5%에서 110.1%로 하락하였으나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 2017년 D.S.R. 비중은 2016년의 37.8%에서 34.7%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2. 국제시장 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3 (2016. 12.)	C2 (2015. 12.)
OECD	6등급 (2017. 1.)	6등급 (2016. 1.)
Moody's	Baa3(Stable) (2017. 7.)	Baa3(Negative) (2016. 4.)
Fitch	BBB(Stable) (2017. 10.)	BBB(Stable) (2017.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1월 28일(북한과는 1992년 1월 28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92), 문화협정('95), 투자보장협정('96), 과학기술협력협정('97), 이중과세방지협정('99),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04), 한국해외봉사단사업협력('06), 원자력협정('10)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2017년 말 누계): 298건, 26억 달러

교역규모

<표 4> 한·카자흐스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455	364	533	산업용 전기기기, 자동차,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등
수 입	305	285	998	원유, 우라늄, 합금철선철 및 고철 등
합 계	760	649	1,531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국제유가의 안정과 최대 유전에서 생산 재개에 따라 2017년의 경제성장율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임.

- 에너지 부문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최대 유전인 카샤간에서의 석유 생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2017년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추진하여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음.
- 비에너지 부문의 발전과 재정 확충을 위해 2015년 이후 2020년까지 국영 기업들의 대대적인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약 70억 달러에 이르는 900개 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임.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주도로 2015년 1월에 출범한 구소련 지역의 경제 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를 설립하여 EAEU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3월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행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헌법개정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나, 여전히 대통령은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대로 외채 지표는 개선추세이나, 여전히 총수출 및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이 높고, 외채상환지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외채상환능력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조영관 선임연구원(☎02-6255-5759)
E-mail: ykj@koreaexim.go.kr